

▣ 박근종 칼럼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이공계 중심' 인재 육성 국가 도약점 돼야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6조 5,000억 원까지 줄었던 예산을 19.3%인 5조 7,000억 원이나 크게 늘렸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加速化)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의지에 찬 결단이자 인공지능(AI)·에너지·전력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초과학 지원과 인력양성을 통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음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불거졌던 과학기술 혼란을 바로잡고 연구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35조 3,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 26조 5,000억 원보다 19.3% 늘어난 대폭 증액이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 진흥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1.4%인 30조 1,000억 원이나 늘렸다. AI 육성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석·박사급 인재 처우 개선 등에 쓰일 예산도 35%인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도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었지만,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를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많이 늦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도 없지 않다.

국정 선무당 윤석열 정권이 거둬 낸 민생경제를 되살려 한국경제를 제도화 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야심 찬 의지의 발현이자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으로 AI와 초(超) 혁신 기술을 활용,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단호하고 결연한 로드맵이 녹아든 재정계획으로 조속히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서둘러 '이공계 중심'인재를 육성하여 '인공지능(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달성'을 실현하는 시금석(試金石 | Touchstone)으로 성장 모멘텀(Momentum)에 차 추동력(推進力)을

가 | Driving Force)이 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무너진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회복하고 혁신을 향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는 계기가 돼야만 한다.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동력이 됐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학문 생태계의 확장, 국부창출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밀도 끝도 없이 "과학기술 카르텔"을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다. 대학 연구비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만 했고, 일부는 중국으로 연구처를 옮겨가기도 했다. 그야말로 '장님무사'가 미구 휘두르는 칼처럼 치든(鐵鎚)의 우(愚)를 범한 것이다. 이과생들의 '의대 풀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R&D 예산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붕괴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에 달려 있다. 결단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예산이 늘었다고 성과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AI와 에너지, 전력 기술, 방산까지 모든 분야를 강조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행 과정에서 투명한 성과 관리와 면밀한 분석으로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우선순위 설정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예산을 '갈라먹기식'으로 나눠 갖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파이가 클수록 공정한 배분과 적재적소의 효율적 공정 배분이 필요하다. 35조 R&D 예산은 다시 한번 '과학기술'을 토대로 국가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이자 다짐이며 강력한 의지다. 그에 부응하는 창조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근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내내 세계를 놀라게 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 시크(Dep Seek)'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인재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물로서 충격은 많은 사람에게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실감 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AI 분야에서만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반도체처럼 한국이 가까스로 격차를 유지하는 분야도 있지만, 과거 '대륙의 실수'라고 웃어넘기던 일이 이제는 '대륙의 실력'으로 우리를 강력히 위협하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2차 세계대

전 이후 막강하던 미국 제조업은 일본에 주도권을 넘겼고, 일본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국에 많은 분야를 내어주었는데, 이제 한국이 중국에 제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에 봉착한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우위마저 빼앗긴다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문제는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 정답은 기술력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기술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즉 제조업 경쟁력은 연구개발 인력의 우수성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유능한 연구개발 인력은 이미 노령화하고, 젊은이들은 '과학기술' 분야를 기피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이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같은 국정과제는 허울 좋은 공염불이 되기에 십상이다. 우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앞으로 5~10년 후에는 이른바 명문이라는 SKY 대학도 이공계 대학원 학생 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미 서울대 일부 이공계 전공은 정원을 겨우 채우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큰 걱정인 '의대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적성과 관계없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의대에 들어가려고 하고, 심지어 사교육 시장에 '초등학교 의대 준비반'이 생기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좇아 서울대 이공계에 들어간 학생조차 '의대 입학에 실패한 루저'라는 주위의 시선에 자괴감이 겪일 정도라고 한다. 또한, 양질의 이공계 일자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우수인재 육성에 중요하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한 국가적 책무임을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이공계 출신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傍證)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에서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과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한국에서의 정착 지원, 대학원생의 경제적 지위 보장, 그리고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는 대입제도 등이 제안될 바 있다. 또한, 배출된 인재의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자유로운 연구 환경,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 등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관부처와 민간기업이 함께 공

동 노력해야만 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찾아보기조차 힘들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거 슬로건으로 유명한 1992년 미국 제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를 들 수 있다. 걸프전의 승리로 지지율이 하늘로 치솟던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낙관했지만, 미국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심 이반을 정확히 꿰뚫지 못해 재선에 실패했다. 우리도 "문제는 인재 확보야, 바보야"라는 데 공감하고 인식의 공유를 바라본다.

작금의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뛰어넘어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Mecca)로 군림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사회가 급변하는 '초(超) 가속 시대'에 과학 기술로 성장한 한국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당연코 묵과해서 안 된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번 R&D 예산 증액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예산 삭감이 낳은 인재 이탈과 연구 중단을 되돌려놓지 않겠다는 준엄한 선언이기도 하다. 2024년 4조 6,000억 원의 예산 삭감으로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만 무려 949명의 연구 인력이 떠났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 등 연구 인력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기초연구 과제만 1만 4,000개나 감소하면서 연구 생태계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간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를 무려 9만 6,000여 명에 달한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역전된 것이다. 한국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22일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R&D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한국 '이공계 중심' 국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최우선을 두 힘을 쏟고 서둘러 현실이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 이사장)의 회화·전, 소방준감)

서울지역 모든 초등생 '안심벨' 달고 등하교 일상 지키는 안심사업 확대

연이은 초등생 유괴 시도 등으로 불안감 ↑ ...

아동,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지원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와 같은 아동대상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턴 전 학년, 약 36만명의 초등학생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초등학생 모두가 '안심벨'을 달고 등하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켜주는 키템 '안심벨프리미'는 올해 10만 개를, 혼자 일하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나홀로 사장님을 지켜주는 '안심경광등'은 올해 1만 개를,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아동(초등학생) ▲청소년·일반시민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서울시 일상 안심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지하철역이나 마트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이상동기범죄가 계속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각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용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는 2019년 1,514건에서 2023년 1,704건으로 13% 늘었다. 이중 유괴는 같은 기간 138건에서 204건으로 48% 급증했다. '서울시 일상 안심사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벨프리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으로 구성된다.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 올해 5월 1~2학년 무상보급, 내년 초학년 확대>>> 첫해, 지난 5월 서울시내 606개 전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24만 7천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아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 총 36만 명의 등하교일이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로 키템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dB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오는 방식이다. 기존 안심벨 경고음(90dB 이상)보다 큰 100dB로 소리를 설정했는데,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지키는 '안심벨프리미': 올해 10만 개 추가 보급... 경고음과 함께 관제센터로 연결>>>

둘째, 매년 신청 때마다 수분 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벨프리미'는 지난해 5만 개를 보급한 데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10만 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안심벨프리미'는 평상시엔 키템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호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해당지역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CCTV 확인 후 필요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펼친다. 또 안심벨프리미로 긴급 신고를 하면 미리 지정한 보호자 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 내용도 발송된다.

특히 '안심벨프리미'를 수령한 이후 두려움이 완화되었다는 응답은 90.1%로 나타났다. '안심벨프리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상안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벨프리미'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93.4%로 나타났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1인 자영업자, 버튼 누르면 경광등+사이렌, 신고접수>>>

마지막으로,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경광등'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후 이틀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사장님들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지원규모를 작년 5천 세트에서 올해 1만 세트로 두 배 늘렸다. 올해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이 11일(목)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심 세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청년 맞춤형 '아이플러스(+)' 이어드림·맷어드림' 성황리 추진

'이어드림' 4회차까지 총 3,857명 신청, 매칭률 최고 60% 달성

'맷어드림' 124건 신청 접수, 청년 결혼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활력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혼남녀와 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아이플러스(+)' 이어드림과 '아이플러스(+)' 맷어드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은 인천 거주 또는 관내 기업체 재직 중인 24세부터 39세까지 미혼남녀 460명을 대상으로, 연 5회 진행되는 만남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 개최됐으며, 모집결과 총 3,857명이 신청해 평균 10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실제로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며, 인천형 결혼 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회차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6월 22일 영종 인스피어 복합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행사에서는 50쌍 중 29쌍이 커플로 성사되며 58%의 매칭률을 기록했고, 7월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제2회 행사에서는 25쌍



이 탄생(50% 매칭률)했다. 8월 23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회 행사는 50쌍 중 30쌍이 매칭되 가장 높은 60%의 매칭률을 보였으며, 9월 7일 중구 을왕리 해변에서 진행된 4회 행사에서도 30쌍 중 17쌍이 커플로 이어져 57%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가 만남의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공략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플러스(+)' 맷어드림'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인천 소재 공공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고, 1쌍당 최대 100만 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을 돕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천

형 결혼장려 지원 정책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을 마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식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표준가격(고급형 기준 1,100만 원)을 적용한 뒤, 예식 후 지원금 100만 원까지 받게 되면 기존 평균 예식 비용 약 1,800만 원(유우2025 결혼비용 보고서 기준) 대비 44% 절감 효과가 있어 청년층이 부담 없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이어져, 지난 4월부터 모집한 결과, 8월 말 기준 총 1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2025년 신청이 65건, 2026년 신청이 59건에 달하며, 상당수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청 건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청년들이 결혼을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만남과 결혼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와 결과 보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보다 완성도 높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www.thesegeye.com 7차재보: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재보 : 1661-8385 등록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